

류현진, 올해도 토론토 개막전 마운드 오른다...3년 연속

다음달 2일 뉴욕 양키스전 선발 등판
 몬토요 감독 "처음부터 류현진 생각"
 한국인 선수 3년 연속 개막전 '최초'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4)이 올해도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시즌을 연다. 27일(한국시간) MLB닷컴에 따르면 찰리 몬토요 토론토 감독은 류현진이 다음달 2일 미국 뉴욕주 양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뉴욕 양키스와 정규시즌 개막전에 선발로 나선다고 밝혔다. 예상된 일이다. 류현진은 팀을 대표하는 에이스다. MLB닷컴은 “몬토요 감독이 류현진을 개막전 선발로 지명했을 때, 아무도 놀라지 않았다”며 “토론토의 에이스는 지난해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3위에 차지했다. 그 결정은 몬토요에게 쉬운 선택이었다”고 적었다. 류현진은 3년 연속 개막전 선발 등판의 영광을 안았다. LA 다저스 소속이던 2019년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개막전에 선발로 나선 그는 6이닝 1실점 호투하며 승리까지 수확했다. 토론토 이적 첫 해였던 2020년에는 탬파베이 레이스와 개막전에서 4%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한국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개막전을 책임지는 건 류현진이 처음이다. ‘코리아 특급’ 박찬호(2001년, 2002년)는 2년 연속 개막전 선발 등판했다. 몬토요 감독은 “우리는 처음부터 류현진을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에이스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스프링캠프가 어떻게 진행되고, 선발 등판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 봐야했다. 이제 그는 그 자리(개막전)에 오르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류현진이 우리의 개막전 선발 투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어려움 없이 알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류현진은 개막전 상대인 양키스전에 통산 4차례 등판해 1승2패 평균자책점 6.04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만 두 차례 만났다. 9월8일 5이닝 5실점으로 몰락했고, 9월25일에서는 7이닝 무실점으로 승리를 따

냈다. 류현진은 이날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시범경기를 마친 후 화상 인터뷰에서 개막전에 대해 “개막전은 어디서 하든 항상 기분 좋고 흥분된다. 선수들이라면 다 그렇게 느낄 것 같다”며 “모든 선수들이 개막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을 것”이라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다. 시범경기 3경기, 연습경기 2경기 등에 나서며 시즌 준비도 마쳤다. 시범경기 성적은 10이닝 4실점 평균자책점 3.60. 류현진은 “순조롭게 진행이 됐다. 준비는 다 됐다”며 “준비 과정은 작년보다 좋다. 몸 상태나, 공이 가는 느낌도 지난해보다 좋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양키스는 개막전 선발 투수로 게릿 폴을 예고했다.



세 차례 올스타에 선정된 바 있는 류현진은 지난해 7승3패 평균자책점 2.84의 성적을 냈다. 지난해 토론토전에는 2경기에 등판해 2승무패 평균자책점 1.29로 강한 모습을 보였다. 뉴스



3월 말까지 전지 훈련에 들어간 배드민턴 국가대표팀(감독 김충희) 선수들이 강진 제2실내체육관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강진에서 도쿄올림픽 준비 한창

이달 말까지 55명 전지훈련
 기량 향상 목표 철저한 방역

대한민국 배드민턴 국가대표팀이 오는 3월 말까지 전남 강진군에서 도쿄올림픽과 2021 3개 국제대회를 대비한 전지훈련에 들어갔다. 남녀 선수 40명과 임원 등 55명으로 구성된 배드민턴 국가대표단은 강진군 종합운동장 2개의 실내체육관에서 굵직한 세계대회를 앞두고 기량 향상을 목표로 훈련에 들어갔다. 김충희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은

“고양시청 감독 시절 강진군에서의 전지훈련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인연이 있었다”며 이번 국가대표 훈련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한 훈련이 가능하단데 최적의 운동환경을 갖춘 강진군이 훈련장으로 선택된 이유라고 밝혔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강진 출신 김재현선수(19세)가 포함된 국가대표 선수단의 강진군에서의 훈련을 환영한다.”며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원했다. 또한 모범적인 군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지켜지고 있는 지역인만큼 안전한 훈련을 위해 철저한 방역을 약속했다. 강진군은 대표팀원들의 출발지에서 가진 검사지를 제출받았고 수시 환기, 경기장 방역초소 운영 등 관련 기관의 협조 속에 철저한 방역 활동으로 원활한 훈련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강진군은 지난 24일 이승욱 강진군수가 훈련장을 방문해 강진 땅심 화훼영농조합법인(대표 조우철)에서 기증한 장미꽃을 선물하며 국가대표 선수단을 격려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메이저리그 도전하는 양현중,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텍사스 감독 “몇몇 로스터 자리, 시범경기 마친 후 결정”

메이저리그 도전에 나선 양현중(33·텍사스 레인저스)이 빅리그에 입성할 수 있을까. 27일(한국시간) MLB닷컴에 따르면 크리스 우드워드 텍사스 감독은 개막 로스터에 대해 “몇몇 로스터 자리는 밀워키 브루어스와 시범경기를 마친 후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텍사스는 오는 30~31일 밀워키전을 마지막으로 시범경기를 마무리한다. 이후 정규시즌 개막전을 준비하기 위해 홈 구장이 있는 델

러스로 돌아간다. 매체는 “레인저스는 로스터 몇 군데를 채워야 하지만, 팀이 델러스로 돌아갈 때까지 개막 명단을 확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드워드 감독은 “지난주부터 로스터를 두고 많은 대화를 나눴다”면서 “시범경기 중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확실한 건 없다”고 말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양현중의 거취도 시범경기 막판에 가서야 결론이 날 전망이다.

초청선수 신분으로 메이저리그 시범경기에 참가한 양현중은 4차례 등판해 9%이닝 11피안타 1피홈런 4실점 평균자책점 3.86의 성적을 냈다. 한편 이날 우드워드 감독은 우완 카일 코디, 브렛 데 게스가 개막 로스터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MLB닷컴은 “코디는 불펜에서 시즌을 시작하지만, 잠재적인 선발 자원”이라고 소개했다. 팀 내 유망주 순위 22위인 코디는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5경기에 나와 11%이닝 9실점 평균자책점 7.15를 기록했다.

피겨 차준환, 세계선수권 톱10...한국 남자 첫 쾌거

베이징동계올림픽 티켓 최대 2장 확보



한국 피겨스케이팅 남자 싱글의 간판 차준환(고려대)이 세계선수권대회 톱10 입성에 성공했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 첫 쾌거다. 차준환은 27일(한국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2021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 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에서 기술점수(TES) 72.90점, 예술점수(PCS) 82.94점에 감점 1점으로 154.84점을 받았다.

이들 전 쇼트프로그램에서 91.15점을 기록한 차준환은 합계 245.99점으로 전체 10위에 올랐다. 한국 남자 싱글 선수가 세계선수권 톱10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있는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피겨사를 새롭게 썼다.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출전권 확보에도 성공했다.

ISU는 국가에서 1명이 출전할 경우 해당 선수 순위에 따라 티켓수를 배분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선수가 1~2위 이내에 진입하면 최대 3장, 3위~10위에 속하면 최대 2장이다. 차준환의 선전으로 한국은 내년 올림픽 때 최대 2명의 선수를 보낼 수 있다. 올림픽 출전 선수는 추후 개최될 국내 선발전을 통해 결정된다. 직접 티켓을 확보한 차준환도 대회에 참가해 경쟁을 벌여야 한다. 워낙 우월한 기량을 갖추고 있어 큰 변수가 없다면 차준환의 출전은 유력하다. 첫 과제 트리플 플립을 안정적으로 처리한 차준환은 주특기인 쿼드러플 살코를 구사하다가 빼앗겨 수랭점수(GOE) 1.44점을 잃었다. 트리플 약셀-더블 토루프 콤비네이션 점프 중에는 넘어져 GOE 4점이 깎였다. 나머지 연기에서는 큰 실수가 없었다. 차준환은 경기 후 “너무 오랜만에 개최되는 대회이기 때문인지 쇼트 프로그램 때부터 많이 긴장했다. 평점심을 찾으려 계속 노력했다”면서 “프리스케이팅 프로그램 구성을 다소 변경했는데, 실수가 나와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톱10에 들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우진·강채영, 양궁 국가대표 남녀부 1위로 선발

오늘부터 도쿄올림픽 경기장 환경과 유사한 부산에서 훈련 돌입



양궁 남자 국가대표 김우진, 여자 국가대표 강채영 (사진 = 대한양궁협회 제공)

김우진(청주시청)과 강채영(현대모비스)이 2021년 양궁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녀부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한양궁협회는 22일부터 27일까지 광주 국제양궁장에서 2021년 국가대표 3차 선발전을 열고 남녀 각 8명, 총 16명을 선발했다. 2016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금

메달리스트 김우진이 남자부 배점 합산 결과 41점, 1위로 선발전을 통과했다. 김필중(한국체대)이 배점 30.5점으로 2위, 박주영(서울시청)이 27점으로 3위, 한우탁(인천계양구청)이 26.5점 4위로 뒤를 이었다. 여자부에서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강채영이 배점 합산 36점으로 1

위를 차지했다. 유수정이 35.5점으로 2위, 정다소미(이상 현대백화점)가 34점으로 3위에 올랐다. 간발의 차였다. 1위를 지키고 있던 안산(광주여대)은 33.5점 4위로 마무리했다. 한편, 김제덕(경북일고)과 오예진(울산스포츠과학고)은 각각 남자부 5위, 여자부 8위에 오르며 고등학생 신분으로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날 선발된 총 16명은 29일 부산으로 이동해 도쿄올림픽을 겨냥한 공식 훈련을 시작한다. 박재순 총감독은 “부산 강서양궁장은 도쿄올림픽과 유사한 바닷바람과 경기장 환경을 고려할 때 최적의 적응훈련 장소”라며 “올림픽 대비 적응 훈련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도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녀 각 3명은 다음달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선발할 계획이다. 1차 평가전은 4월5~9일(부산), 2차 평가전은 4월 19~23일(원주)에 열린다. 뉴스

임성재·김시우, WGC 매치플레이 16강 진출 실패

각각 조 최하위인 4위에 머물러

임성재(23)와 김시우(26)가 월드골프프렘이언십(WGC)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임성재는 27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의 오스틴 컨트리클럽(파71)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조별리그 16조 3차전에서 빅토르 페레스(프

랑스)에게 2홀 차로 졌다. 조별리그 세 경기를 1승2패로 마무리한 임성재는 조 최하위인 4위에 그쳤다. 이날 페레스를 제압하면 16강 진출권을 얻을 수 있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1~3번홀을 내리 저 무너졌다.

12~13번 홀을 이겨 추격했지만 다시 16번에서 무릎을 꿇었다. 김시우도 양투안 로즈너(프랑스)와 최종전에서 3홀차로 패했다. 1무 2패가 된 김시우는 조4위로 탈락했다. 세계랭킹 1위 디스틴 존슨과 2위 저스틴 토마스(이상 미국)는 나란히 16강행이 좌절됐다. 뉴스